

헤겔과 그의 哲學(五)

李灌鎔

卽 다시 말하면 實在는 恒常 有□의 全體임으로 어느 部分이든지 全體를 卍나는 同時에 그것은 具體的 實在가 아니요, 抽象的 概念이라는 歸結이 생긴다. 이러한 全體에서 어느 部分을 생각하든지 다른 部分이 或은 前提로 或은 歸結로 必然히 聯想됨으로 卽 正은 反을 反은 正을 必然的 로 생각하게 됨으로 辨證法的 發展에 잇서서 恒常 그 全體를 보지 안할 수 업는 것이다.

『헤겔』哲學의 概要라는 □下에 이것으로 뜻을 내는 것은 不足한 感이 업지 안흐나 □細한 것은 各論에서 □述하려니와 위선 『헤겔』의 態度가 이러하다는 것만은 일어두어야 研究하기에 便할 뜻하다.

三. 헤겔의 根本的 思想

헤겔의 根本的 思想은 □명한 文句 하나로 代表할 수 업다는 것이다. 왜 그런고 하니 헤겔은 自己의 固有한 體系를 세워서 다른 哲學體系 猨헤 □付 식혀 哲學史를 좀더 □□하게하고 십지 아녜다는 것이다. 『哲學의 眞理는 그 歷史어 차질 것이다』함이 그의 □度이었다. 各□體系에 보다도 歷史 上에 나타난 모든 哲學體系의 有□의 連結에서 眞理-概念的 思惟와 實際的 □□을 集介하는 眞理의 展開를 □□것이다. 그 까닭에 그는 哲學史 全體를 自己 哲學體系의 基礎로 하고자 하였다. 哲學史 上에 나타난 모든 思想을 綜合하여 自己의 體系로 하고 십혔다. 勿論 남의 思想을 自己의 目的에 드러맞도록 意□적으로 取捨하여 한 體系를 얼거노흐라는 □□의 折衷主義가 自己의 目的이 아니였고 모든 哲學的 概念과 見지를 人類思想 發展過程의 必然的 要素 보고 體系와 體系 사이의 矛盾關係까지 論理的으로 說明하여 自己의 哲學을 『모든 先輩哲學의 □□』으로 하라는 것이 그의 目的이었다. 이러한 □□가 決코 單純히 個人的 欲望에서 생긴 것이 아니요, 그 哲學的

思想內容과 哲學的 方法에서 必然으로 생긴 것인 것은 우리가 장차 그의 根本的 思想을 研究하여 가는 대로 스스로 깨다를 것이다.